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5호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건강상태별 개인화
6조 건기식 시장 잡아라"
L1

약도 골라 먹는다
제약업계
제형 차별화 경쟁
L2



"와우 한마디면 충분… 음악으로 행복과 위로 전하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음악으로 행복 짓는
방 영 섭 작곡가



방영섭 작곡가.

1985년 제9회 MBC 대학가요제 입상
가수·작곡가·뮤지컬 배우 등 활동

2009년 뉴욕서 '행복콘서트' 개최
국내외 넘나들며 200회 넘게 공연

'와우'에 담긴 공감·격려의 가치 강조
AI 활용한 뮤직비디오 제작 등 도전

무심코 건네는 짧은 감탄사에 격려와 공감의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방영섭 작곡가가 뮤지컬 'WOW!!'로 또 한 번 관객의 마음을 두드린다.

가수,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부터 뮤지컬 배우까지. 방 작곡가가 걸어온 길은 한 가지 직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지만, 전하려는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상에 위로를 건네는 것이다.

◆무대 안팎 넘나든 40년

방영섭의 음악 인생은 1985년 제9회 MBC 대학가요제 입상으로 시작됐다.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이후 작곡과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2007년 미국 유학은 음악적 시야를 넓힌 계기였다. 뉴욕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문화를 접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표현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지에서 발매한 앨범 'HAPPY HAPPY'에는 당시의 경험과 음악 인생을 돌아본 생각을 담았다.

"그 장면에 왜 이 음악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음악은 장르를 넘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방 작곡가는 '서사와 감정'에서 음악의 본질을 찾는다. 가사의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는 CCM부터 여러 목소리가 하나의 울림을 이루는 합창, 인물의 서사를 끌고 가는 뮤지컬까지. 장르마다 음악이 쓰이는 방식은 다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안에 감정과 여운을 남겨야 한다는 점은 같다.

작업할 때도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끝까지 붙든다. 선율을 복잡하게 꾸미기보다 단순하지만 오래 남도록 만든다. 가수와 연주자의 개성이 더해지면 곡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그 해석의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이다.

◆'행복은 선택이다'…위로·희망 전달

음악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겠다는 생각은 행복콘서트로 이어졌다. 노래와 이야기, 관객과의 소통을 엮어 웃음과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공연이다. 방 작곡가는 2009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첫 공연을 연 뒤,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200회 넘게 행복콘서트를 이어왔다.

핵심 메시지는 '행복은 선택이다'였다. 그가 생각하는 행복은 늘 웃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에 가깝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임하는 태도와 다음 걸음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어를 배우던 시절, "뉴욕에서 살려면 와우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표현으로 받아들였지만, 곧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와우는 리액션이잖아요. 위로할 때도, 칭찬하고 격려할 때도 필요하죠. 상대의 이야기에 감탄하고 반응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아는 것이 많은 시대일수록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감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에게 와우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좋은 점을 발견해 표현하는 태도다. 행복콘서트에서 전해온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도 이 생각에서 출발했다.

◆감탄사 'WOW', 무대 위 이야기로

행복콘서트에서 전한 메시지를 창작뮤지컬 'WOW!!'에서 무대 위 인물의 삶으로 확장했다. 오는 19일 김천시립합창단 창단 25주년 기념 제40회 정기연주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으로, 방 작곡가는 뮤지컬에 들어가는 7곡을 작곡했다.

그에게 이번 작품은 그간 경험한 음악 활동을 하나의 무대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가수와 작곡가로서 노래를 만들고, 프로듀서로서 음반을 제작하고, 배우로서 무대에 섰던 경험을 뮤지컬 이야기 안에 녹였다.

작품은 주인공 도희가 40대의 자신과 20대의 자신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40대의 도희는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 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위로다. 이 장면에 흐르는 노래가 '여기까지 잘 왔어'다.

방 작곡가는 이 곡을 쓰면서 자신도 울컥했다고 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잘 해낸 순간뿐 아니라 버텨낸 시간도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에서다. 관객 역시 도희의 이야기를 보며 자신의 삶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가 또 하나 아끼는 곡은 '따스한 그날의 기억'이다. 평범하게 흘려보낸 하루가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되겠지, 아무 일 없이 평범했던 하루가 너무나 그리워지네"라는 가사처럼 지금의 일상이 훗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새로운 기술도 창작의 도구

요즘 방 작곡가는 새로운 방식을 익히며 작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직접 인공지능(AI) 도구를 배워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다. 자신이 구상한 이야기를 대본과 영상으로 직접 완성해 보고 싶어서다. 그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은 또 하나의 창작 과정이다.

AI가 창작자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거부보단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택했다.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직접 다루기 어려웠던 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은 기회라고 말한다. 다만 AI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과 창작자가 의도를 갖고 작품을 완성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고 믿는다.

"AI로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과 작품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결과물이 많아지는 시대일수록 결국 누군가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죠. 저도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데 거부감이 없어요. 해보지 않았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입니다."

앞으로는 뮤지컬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음악을 중심으로 다른 분야까지 작업 영역을 넓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노래 한 구절과 무대 한 장면이 누군가의 삶에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랄 뿐이다. 음악으로 웃음과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와우 하나만 잘해도 좋은 일도 하고, 재미있게도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것보다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나오는 감탄사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에도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말. 방 작곡가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가능성을 믿는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그의 메시지처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기꺼이 감탄하고 서로의 순간을 인정하는 일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익숙해서 지나쳤던 '와우'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는 이유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창작뮤지컬 'WOW!!' 포스터.


방영섭 작곡가(왼쪽에서 두번째)의 미국 활동 시절 모습. /본인 제공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이강인 미소…한국 축구, 사우디전 뒤로하고 다시 구슬땀 /사진 뉴시스

▲'트리플 악셀 성공' 피겨 김유재, 시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 쇼트 3위…첫 메달 도전

▲'AG 금메달' 스케이트보드 강준이, SLS 도쿄서 시즌 2번째 우승

▲서울 문화시설 야간 결혼식 어때요?…운현궁·박물관 개방

▲예술의전당 11월 마티네…노현진·김정원 등 출연

▲그때 그 연극, 오늘의 무대로…'리플레이' 24일 개막